IBK경제연구소 경제금융팀 sylee@ibk.co.kr ☎ 02-729-6899

IBK경제나침반 : 글로벌 경제동향

2017.11

참!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| IBK경제연구소

목차

Ⅰ. 국가별 동향

미　국 : 완만한 경기확장세로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증대

유로존 : EU와 영국의 3대 핵심쟁점 협상 지연으로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 증가

중　국 : 수입관세 인하하며 소비재 시장 개방

일　본 : 3/4분기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.7%(속보) 기록, 회복세 뚜렷

한　국 : 생산·소비·투자 등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세는 지속

I B K 경 제 연 구 소
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

본 자료는 IBK경제연구소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자료이며, 어떤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Ⅰ. 국가별 동향

□ 미국, 완만한 경기확장세로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증대

○ 소매판매와 소비자물가는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양호한 모습

- 고용지표는 부진했던 전월에 비해 크게 반등, 10월 비농업 신규취업자수는 호텔·식당 부문의 취업자수 반등(9월 △10.2만명 → 10월 10.6만명)으로 26.1만명(3개월 월평균 16.2만명) 증가해 양호한 고용시장을 보임 ※ '17년 상반기 비농업 신규취업자수(월평균) : 17.1만명

○ 연준이 11월 FOMC회의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상향조정(9월 '완만' → 11월 '견조')하며 12월 기준금리 인상은 확실시

※ 선물시장에 반영된 12월 금리인상 확률 : 95.9%('17.11.28일 기준, 블룸버그)

분기지표	'16.Q3	Q4	'17.Q1	Q2	Q3
GDP(전년동기대비, %)	1.5	1.8	2.0	2.2	2.3

월지표	'16.10월	'17.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3.7	4.2	3.0	3.7	3.5	4.8	4.6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1.6	1.9	1.6	1.7	1.9	2.2	2.0
비농업부문 신규취업자(만명)	12.4	14.5	21.0	13.8	20.8	1.8	26.1
실업률(%)	4.8	4.3	4.4	4.3	4.4	4.2	4.1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△0.8	2.2	2.0	1.9	1.5	2.1	2.9

□ 유로존, EU와 영국의 3대 핵심쟁점 협상 지연으로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 증가

○ 3/4분기 경제성장률(잠정)은 주요국(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 등) 경기호조로 전년동기대비 2.5%를 기록하며 '11년 1/4분기(2.9%) 이후 최고치

※ 주요국 3/4분기 경제성장률(전년동기대비, %) : 독일(2.8), 프랑스(2.2), 이탈리아(1.8), 스페인(3.1)

○ '17.6월 이후 6차에 걸쳐 진행된 브렉시트 협상에서 3대 핵심쟁점*에 대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여 협상 결렬 가능성 제기

* ①영국의 EU 탈퇴비용 ②상대국 체류민 권리 ③아일랜드 국경 문제

- EU는 영국의 EU 탈퇴비용 지급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압박하고 있으며, 본격적인 무역협정 등에 대한 협상 개시가 계속 지연될 경우 브렉시트 협상 결렬의 가능성도 제기
- EU와 영국의 탈퇴비용 추산에 대한 이견으로 3대 핵심쟁점 협상은 장기화될 전망

분기지표	'16.Q3	Q4	'17.Q1	Q2	Q3
GDP(전년동기대비, %)	1.7	1.9	2.0	2.3	2.5

월지표	'16.10월	'17.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0.7	4.1	2.9	3.7	3.9	3.3	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2.9	2.8	3.5	2.3	2.3	3.7	
실업률(%)	9.8	9.2	9.1	9.0	9.0	8.9	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0.5	1.4	1.3	1.3	1.5	1.5	1.4

□ 중국, 수입관세 인하하며 소비재 시장 개방

○ 10월 경제지표는 난방철을 앞둔 환경오염 규제강화, 부동산 규제강화 등으로 생산, 소비, 투자가 모두 소폭 둔화

○ '17년 광군제(光棍節, 11.11일) 하루 매출액은 총 1,682억위안으로 전년(1,207억위안) 대비 약 40% 증가, 한·중간 갈등 완화효과로 광군제에 참여한 한국기업들*도 큰 폭의 매출 신장을 기록 * 이랜드(4억 5,600만위안) 39%↑, 아모레퍼시픽(3억 8,700만위안) 53%↑ 등

※ 광군제 매출액(억위안) : 350('13) → 571('14) → 912('15) → 1,207('16) → 1,682('17)

○ 중국 재정부, 12.1일부터 187개 소비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(평균 17.3% → 7.7%)함에 따라 의류, 화장품, 식료품, 건강식품 등 소비재 관련 외국계 회사들의 중국 소비시장 진출이 대폭 확대될 전망

분기지표	'16.Q3	Q4	'17.Q1	Q2	Q3
GDP(전년동기대비, %)	6.7	6.8	6.9	6.9	6.8

월지표	'16.10월	'17.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6.1	6.5	7.6	6.4	6.0	6.6	6.2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10.0	10.7	11.0	10.4	10.1	10.3	10.0
고정자산투자(전년동월대비, %)	8.3	8.6	8.6	8.3	7.8	7.5	7.3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△7.3	8.7	11.3	7.2	5.5	8.1	6.9
70개도시신규주택가격(전년동월대비, %)	10.4	9.7	9.6	9.3	8.2	6.5	5.7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2.1	1.5	1.5	1.4	1.8	1.6	1.9

□ 일본, 3/4분기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.7%(속보) 기록, 회복세 뚜렷

○ 3/4분기 경제성장률은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1.7%, 전기대비로는 0.3%를 기록하며 7분기째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

※ 3/4분기 부문별 성장기여도(전년동기대비, %p) : 소비 0.5, 투자 0.5, 수출 0.7

- 하반기 들어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가 경기회복세를 견인

○ 2017회계연도 상반기(4~9월) 결산 결과, 일본 상장기업 순이익은 2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반면, 5대은행*의 영업이익은 28% 급감

* 미쓰비시UFJ, 미쓰이스미토모, 미즈호, 리손, 미쓰이스미토모TRUST

- 상장기업 실적은 내수보다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엔저 등 대외여건 개선으로 증가(매출 6%↑, 순이익 17%↑)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
- 5대은행은 저금리 장기화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인력감축, 지점축소 등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

분기지표	'16.Q3	Q4	'17.Q1	Q2	Q3
GDP(전년동기대비, %)	1.0	1.6	1.5	1.4	1.7

월지표	'16.9월	'17.4월	5월	6월	7월	8월	9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1.5	5.7	6.5	5.5	4.7	5.3	2.5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△1.7	3.2	2.1	2.2	1.8	1.8	2.3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△6.9	7.5	14.9	9.7	13.4	18.1	14.1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△0.1	0.3	0.4	0.4	0.5	0.7	0.7

□ 국내, 생산·소비·투자 등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세는 지속

○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.1% 증가한 449.8억달러(12개월 연속 증가, 일평균 25.0억달러)
- (품목별) 13대 주력품목 중 7개 품목이 증가, 고부가가치 품목(OLED 등) 수출이 크게 증가
  ※ 품목별 : 반도체(69.6%), 선박(36.0%), 석유제품(10.3%), 석유화학(6.1%), OLED(72.4%)
- (지역별) 현지 제조업 경기 호조세에 따른 중간재 수출 증가 등으로 중국 및 아세안, 베트남, EU로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
  ※ 지역별 : 중국(13.5%), EU(2.6%), 아세안(17.4%), 베트남(33.84%), 미국(△12.4%), 일본(△12.1%)

○ 10월 산업생산은 생산·소비·투자 등의 부진으로 '14.11월(△0.3%) 이후 최저인 △2.2% 기록
- 제조업생산은 자동차(△17.5%), 기타운송장비(△37.7%), 금속가공(△18.7%) 등이 줄어 6.2% 감소
- 설비투자는 기계류(0.2%), 항공기 등 운송장비(△11.8%) 투자가 줄어 3.4% 감소
-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(△1.9%), 의복 등 준내구재(△4.0%) 판매가 줄어 0.2% 감소

○ 3/4분기 가계신용은 전기보다 31.2조원(2.2%) 증가한 1,419.1조원 기록
  ※ 가계신용(조원) : 1,296.5('16.Q3) → 1,342.5(Q4) → 1,359.1('17.Q1) → 1,387.9(Q2)→ 1,419.1(Q3)
- (예금은행)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매매거래 및 입주물량 증가 등에 따라 확대되었으며,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의 증가폭도 확대(+12.0조원 → +15.0조원)
- (비은행예금취급기관) 비은행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의 증가폭이 모두 축소(+6.3조원 → +4.3조원)

○ 원화강세는 7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3분기 경제성장률(1.4%), 반도체·철강 수출로 사상 최대 흑자를 낸 9월 경상수지(122.1억달러), 사드 보복 등의 한중 갈등 봉합 등에 기인
- 원화강세 지속은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는 수출 산업(반도체, 석유화학업종)에 부정적 영향
  ※ 원/달러 환율(원) : 1,148.0(9.28일) → 1,131.0(10.27일) → 1,096.1(11.9일) → 1,082.9(11.30일)

○ 11.30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회복세에 6년 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.25%p 인상
- 미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확정되었고, 국내경기가 높은 수출증가세, 완만한 소비개선, 양호한 투자흐름 등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기 때문
- 다만, 내년 기준금리 인상 횟수는 저물가·원화강세·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1~2회 예상
  ※ 기준금리(%) : 2.00('14.10) ⇒ 1.75('15.3) ⇒ 1.50('15.5) ⇒ 1.25('16.6) ⇒ 1.50('17.11)

분기지표	'16.Q3	Q4	'17.Q1	Q2	Q3
GDP(전기대비, %)	0.5	0.5	1.1	0.6	1.4
GDP(전년동기대비, %)	2.6	2.4	2.9	2.7	3.6

월지표		'16.9월	10월	'17.6월	7월	8월	9월	10월
제조업	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△2.0	△1.2	△0.6	△0.4	2.5	8.7	△6.2
	출하(전년동월대비, %)	△2.8	△2.1	△0.1	0.1	2.4	8.6	△6.7
	재고(전년동월대비, %)	△7.9	△6.2	△1.8	1.7	3.2	2.0	5.9
	평균가동률(%)	71.6	70.9	71.3	73.1	72.0	71.9	71.3
서비스업 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	2.9	2.0	2.1	2.3	2.1	5.3	△0.2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	0.2	2.5	1.1	3.6	0.9	8.4	△0.2
투자	설비(전년동월대비, %)	△4.0	△3.3	18.6	24.9	12.4	24.9	△3.4
	건설기성(전년동월대비, %)	10.9	20.2	12.7	17.4	13.9	23.9	3.5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	1.3	1.5	1.9	2.2	2.6	2.1	1.8
아파트 매매가격(서울, pt)		102.7	103.4	105.7	106.6	107.7	107.9	108.3
실업률(%)		3.6	3.4	3.8	3.5	3.6	3.4	3.2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	△6.0	△3.2	13.4	19.5	17.3	35.0	7.1
수입(전년동월대비, %)		△1.6	△4.7	19.8	15.5	15.3	21.7	7.4